東亞日報

刊朝 本紙朝夕刊合十頁

社說

暗澹한朝鮮米의前途

一

昨今의 所謂 朝鮮景氣는 主로 米價騰貴에 依한 結果이바 이 景氣가 얼마나 오래 버티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米價騰貴에 對한 [illegible]

[illegible]

二

[illegible]

三

[illegible]

四

[illegible]

蘇領不侵略確保되면 日本에北樺太讓渡

國境委員會設置와關聯하야 蘇、駐日大使에게訓令?

【同盟東京電話】一日모스크바로부터 某機關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蘇聯政府는 日蘇第三回 國境委員會設置에 關聯하야 日本에 對하야 北樺太讓渡의 意向을 가지고 近間 駐日大使유레네브氏에게 重要訓令을發하리라고 觀測된다 卽蘇聯은 極東의領域 及外蒙古에對하야 日本의 不侵略이 어떠한 形式에 엇어서確立된다면 極東軍備의撤廢 及漁業問題의 解決에 關聯하야 北樺太의 讓渡까지도 不辭하다는 方針을 決定한 模樣이다【寫眞은 유레네브氏】

在滿의全蘇聯人 八月中、全部撤退?

對日戰線의空氣煽動코저 在哈蘇領事의通告

【新京一日發聯合】[illegible]

牡牧鐵道를 滿鐵에委任經營

【新京一日發聯合】[illegible]

"一九三八年이면 赤蘇政權顚覆?"

全露파시스트大會開始

【하르빈一日發聯合】[illegible]

行政院長은 孔祥熙氏代行

汪氏는因病治療

【同盟上海一日發】[illegible]

白堅武氏 行方不明?

【北平一日發聯合】[illegible]

馮玉祥氏中心으로 反蔣運動進展

【天津一日發聯合】[illegible]

"新生"의不敬事件으로 國府에重大抗議?

◇有吉大使南京行

【同盟南京一日發】[illegible]

中國態度監視

關東軍幕僚會議

【新京二十九日發聯合】[illegible]

第二次의 在中總領事會議

【上海一日發聯合】[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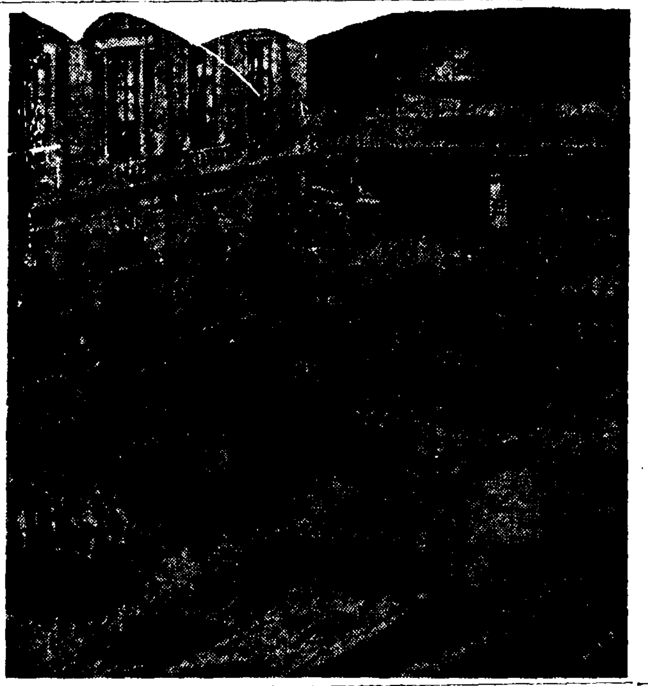
蔣大使歸國

林陸相과會見

【同盟東京電話】[illegible]

土肥原少將歸任

【天津一日發聯合】[illegible]



軍國의獨逸 [illegible]

農省、百萬石의 整理賣却斷行?

【同盟東京電話】[illegible]

中國과米伊兩國間 空軍密約을締結?

米國서軍用飛行機六百臺와 伊國서四百臺를購入

【上海三十日發電】[illegible]

密約 [illegible]

米國 [illegible]

飛行 [illegible]

毛澤東氏 兗軍에서戰死?

【同盟成都一日發】[illegible]

罹災者救助策 內務省協議

【東京電話聯合】[illegible]

南朝鮮電力 創立總會

【同盟東京電話】[illegible]

一、名稱　南朝鮮電力株式會社
一、資本金　二千萬圓（四分之一拂込）
一、本社　朝鮮大田
一、事務所　大阪、京城

九百餘名의 小學校長 奏任待遇로

【東京電話聯合】[illegible]

夕刊後市況

◎滿洲生絲　[illegible]
◎繭井人絹　[illegible]

今津佛國博覽會十博覽會・發明

蠅은勿論
아모런
家庭害虫이라도
대번에全滅!
液體殺虫劑와는
効力이다르다

▼夏季豫防에
꼭一家에一罐을!

景品附 イマヅ製品
▼イマヅ蠅取粉
▼イマヅ殺虫劑
▼イマヅ芳香油

◎南京虫用、赤色イマヅ蠅殺粉이로있음

大阪市・天王寺 株式會社 今津化學研究所

景品總額 五十萬圓提供!!
空くじなし
愛用者サービス

第二回抽籤
締切・八月廿日
發表・九月上旬

大景品
1 [illegible]
2 [illegible]
3 [illegible]
4 [illegible]
5 [illegible]
等外 イマヅ防虫香

付品景引福

二階 贈答品賣場

中元大賣出

御買上參圓마다
抽籤券添附

景品
一等　勸業債券(二十圓券)　五枚씩
二等　扇　風　器　一台씩
三等　勸業債券(二十圓券)　一枚씩
以下七等까지 空籤이無함

七月一日부터 十四日까지

京城本町一丁目
株式會社 大澤商會京城支店

진노-

KM-56

마구닌錠

小兒健康은 蛔蟲驅除부터

蛔虫菓子 마구닌제리

自七月一日부터

團成社

이밤이말로

자장가

女子의感情

最後의一人까지

朝鮮劇場

明川赤農同盟事件
尙今百餘名取調
送局까지에는 數月이걸릴듯
檢擧한總人員三百

납가사의 적색운동 검거사건은 무려에 오래될 양월로 계속되고잇는중 현재에 재-장래위치로서 검거되고 잇는것은 명천(明川)을 중심으로 하고잇는 적색농민동맹(赤色農民同盟)사건이라한다. 이번사건은 지난 四월부터 검거에 착수하야 이래 수개월에 항하고잇는바 현재에 구금되어 취조를 받고잇는 피의자만이 백여명에 달한다고한다. 최초검거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검거된 연인원(延人員)은 三백여명이엇다. [illegible] 현재 백여명만이 남아잇어 이 사건을 송국하기까지에는 아직도 수개월을 요하리라하야 그 귀결여하를 주목중이라한다.

楊子江危險
湖南、北、浙江水害

【전통상해一일발】 연일 호우로 양자강(楊子江)은 위험수위를 돌파하야 한구(漢口)、장사 [illegible] 호남(湖南)、호북(湖北)、절강(浙江) [illegible] 수해가 발생하야 위험상태에 잇어 [illegible] 또 수해에 빠젓다.

蔚珍赤農事件
最高六年役求刑
昨一日、咸興地方法院에서
朱有萬만單獨公判

【함흥지국전화】 사변三월중순경부터 약三개월간 강원도 울진(蔚珍)군 [illegible] 적색농조(蔚珍赤色農組)사건의 피고 [illegible] 五十명이 청년들 검거하야 [illegible] 함흥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미전(米田)재판장 주심 및 [illegible] 야(西野)검사의 입회로 전이에게속하야 피고 남훈기(南口紀)로부터 심리가시작되엇다. 그리하야 남어지 피고九명이신리를 급마치다음 입회검사로부터 다음과같은 구형이잇섯다. 피고 주유만(朱有萬)은 [illegible]

朱有萬 六年　黃龍一年　李熙國四年
陳基烈五年　朱孟叔四年　南昌星四年
崔有福二年半　李有順二年　南日星二年半
朱鎭果二年半　田鳳二年　田永權二年

大阪廿三紡績
工場에浸水

【전통대판전화】 [illegible] 본방적 아화전(岸和田)방적이하 [illegible]

점점 자라가는 漢江 새鐵橋

出漁中覆船
四十名失踪
警備船이出動

【해수지국전화】 어제아침十一시 해주군 서면(海州郡西面)결성포(結成浦)에서 매시리이를 실어고떠난 김거복(金巨福)소유의 어선이 남쪽으로 가는중 [illegible] 기를만나 전복되엇다. [illegible] 로미국 무사하기에 [illegible] 경비선(警備船)으로 이에 출동하엿다 [illegible]

齒醫學硏究次
李有慶氏歐米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世醫) 치과(齒科)의 사이 유경(李有慶)씨는 치과의 연구차 [illegible] 미국 [illegible]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불란서、영국 [illegible]

【사진은 이유경씨】

資州線貨車
正面衝突

【하관전화】 [illegible] 미주선(資州線) [illegible] 화물열차가 정면충돌 [illegible]

拘留一日에七百圓
二萬四千圓의 罰金 判決받어
骨牌稅令違反으로

[illegible] 구류(拘留)一일에 七백三十八원식 갚아나가라는 지기한 판결— 피고는 경성부황금정(京城府黃金町) 김수종(金壽鍾)(四○)으로서 一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적(赤)재판장으로부터 조선골패세령위반(朝鮮骨牌稅令違反)으로 二만四천원과 八백원의 벌금판결을 받엇는데 만약 이것을 납입치못하는 경우에는 二만四천원에 대하야 三백二十八일, 八백원에 대하야 [illegible] 일의 노역장(勞役場)에 유치하다는것이다. [illegible] 피고는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리라 한다.

工業地帶永登浦에
鍾紡工場不遠着手
約百八十萬圓의經費드려
놀랠만한漢江건너의發展

대경성의발전 따라 장래에는 경성과인천이 맞붙게될 보장이데 위선 한강(漢江)이도교가 완성되는날 영등포와 경성간에는 어떤수 없이하데 다이 버립것이다. 그리되면 한강건너 노량진, 영등포, 시흥군 [illegible] 방면 또방면을 한것이 명양판하의 사사이데 그중에서도 영등포는 기설된 공장등으로보나 이제로부터 사수될가 공장등으로 미루어 본나한시라도 근교경성에 이채로워지게될 것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제 영등포에 시설된 각종 공장중에서 [illegible] 시설로보아 아직까지는 [illegible] 가 경쟁한 생각까지는 [illegible]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조방(鍾紡) [illegible] 약백八十만원의 경비를 들이어 영등포에 [illegible] 방적회사(東洋紡績) [illegible] 이에 노동자의 [illegible] 결정된다고 한다.

"新建設"事件
豫審終結書全文 (一)

住居 京城府天然洞一五番地 開闢社記者 朴英熙(三五)
住居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三四 布木商店員 尹基鼎(三四)
住居 京城府通義洞一○四 著述業 民村 李箕永(四一)
住居 高陽郡恩平面付岩里二三 雜誌記者 宋影 宋武鉉(三○)
住居 咸興府城川町四丁目三二 著述業 雪野 韓秉道(三六)
住居 京城府觀水洞一六一 朝鮮日報記者 哲民 朴完植(三○)
住居 京城府安國洞中央印書館 本籍 慶尙北道達城郡壽城面凡勿洞五○一番地 書記 朝鮮日報記者 權煥 權景完(三○)
住居 大邱府南山町二七七番地 著述業 李甲基(三二)
住居 京城府勸農洞九五番地 畵家 李相春(三○)
住居 京城府楽洞八九番地 映畵撮影監督 金裕泳(三○)
住居 京城府嘉會洞一九一番地 著述業 白鐵 白世哲(二八)
住居 京城府西四軒町七四番地 中央印刷所外交員 趙永○(三○)
住居 京城府觀底洞四六番地ノ三 鄭靑山(三○)
住居 京城府積善洞一八六番地 無職 羅兒 李東珪(二九)
住居 京城府竹添町二七一番地 無職 高英 金炯甲(三○)
住居 京城府積善洞 [illegible] 無職 金貴洙(二○)
住居 京城府苑洞 [illegible] 中央日報記者 [illegible]
住居 平壤府西城里 [illegible] 畵家 [illegible]
住居 京畿道高陽郡 [illegible]
住居 京城府崇四洞一四五ノ一五 俳優 羅雄 羅俊英(三○)
住居 京城府寬勳洞 [illegible] 朝鮮日日新聞社員 赤陽 秋完鎬(三○)
住居 京城府禾井洞九二番地ノ一
住居 京城府彌井洞二番地ノ一 羅雄商 一良 石再洪(三○)
住居 京城府敦義洞九三番地ノ一 洋服商 李箕相(三○) 著述業 崔貞植(三○)

右被告人等에 對한 治安維持法違反被告事件에 對하야 豫審을 마치고 決定함이 左와 如함

主文
本件을 全州地方法院의 公判에 附함

理由

第一、被告人 朴英熙는 私立攻玉小學校를 거처 私立培材高等普通學校를 卒業하고 大正八年春頃 東京에 건너가 正則英語學校에서 배우고 ... [illegible] 大正十三年八月頃早日 同十五年 八月까지 [illegible]

(이하 본문 [illegible])

... 被告人 尹基鼎은 京城府私立普成高等普通學校를 卒業後 二年間 [illegible] 私立徽文高等普通學校에서 [illegible] 被告人 李箕永은 忠淸南道 天安郡에 [illegible] 被告人 李北滿、韓秉道、朴容大、李相和 [illegible] 推擧하고

(계속)

全市에七百卅一區로
調査員八百名
세세일맥히 조사할방침
府國稅調査準備會

경성부에서는 국세조사의 준비 조사구 사정(區域)에 관하야 [illegible] 동회에서 조사원과 [illegible] 경성부내 八백여명이 [illegible] 한다.

오늘의 天氣
흐립니다.

✱그날그날✱
(陽)七月二日 (火曜)
(陰)六月二日 (己卯)
日出 前五、一五　日入 後七、五七
月出 前六、(二)　月入 後九、(○)

【滿 潮】
仁川 前六、二五　後六、三五
釜山 前九、二二　後九、四○
鎭南浦 前○、二○　後○、四○

第四回全朝鮮中等校
男女英語雄辯大會
延禧專門主催・本社後援
十一月二日에開催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주최、본사후원의 제四회전조선남녀중등학교영어웅변대회(英語雄辯大會)는 十一월二일에 연희에서 열리는데 참가신청은 十一월十일까지이오 기타상세한 규정은 다음과같다.

◇綱領及規定
一、本大會는 全朝鮮男女中等學生英語雄辯大會라 함
一、本大會는 朝鮮中等學生의 英語會話의 能力을 助長하기爲하야
一、參加資格은 朝鮮內의 官公私立中等程度의 男女學生이면 누구나 參加할수잇음
一、一校는 一人의 代表者를 參加시키되 當該學校에서 正當한 科程을 밟고 進級한者에 限함
一、材料는 文學上의 名言文例를 模倣할것 時事에 關하지말것 十分以內에 말할수잇는것으로서 和譯副本을 반드시 申請時添附할것
一、審判은 審判部에서 行함
一、賞品은 男女를 區別하야 各一等、二等을 定하야 授與함
一、大會는 申請校가 二十校以上이될때는 延專講堂에서 豫選을 行하되 二十校未滿일때는 豫選을 行하지 안코 바로 最終決選을 行함
一、參加는 十月一日 以前으로 할것 豫選의 場所에는 十月二十日 決選은 十一月二日에 行함
一、決選 大會場은 追後發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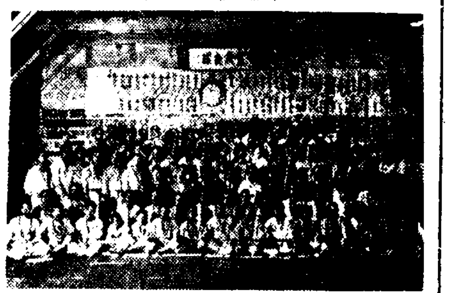
東京留學生野球團
二日夕京城到着
群山서一戰을마치고

【群山支局電話】 東京留學生野球團은 今日三十日 大邱에서 一戰을行하고 一日朝群山에到着、一日午後에 其地府民과 一戰을行하고 二日午前十一時二十一分 群山을떠나 이날午後七時二十五分 京城에到着할豫定이라고한다.

開城에水泳講習

【開城】 高麗靑年會에서는 七月十日부터 同十六日까지 一週間豫定으로 同會主催로 水泳講習會를 開催하고 一般有志에게 開講하리라는데 이번開催에 있어서는 相有望한만치 사못人氣를 끌게되리라고 잇으리라는바 希望者는 빨리 申請書를 提出하야 주기를 바란다하며 詳細事項은 다음과같다고한다.

◇講習期間 自七月十日至十六日 까지
◇申請期 七月九日까지
◇會費 每人三十錢
◇講習科目 理論과實習
◇講師 孔鎭恒、朴聖主



朝鮮硏武館
昇段進級戰參觀記
紅眞飾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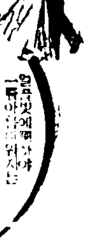
嘉松洞一角에 朝鮮硏武館이 呱呱의 소래를 치고 世上에 나온지가 이미 五個星霜이란 歲月이 흘럿다. 五年前에 盛大히 열리엇든 落成式에 筆者가 末席에 參席하얏슬 그때에는

朝人의 道場으로서 이만한것이 생김은 우리武道界에 多幸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을 어떠한 方法으로 살려 나갈수잇을가?

이러한 念慮가 없지안하잇엇다. 事實 그때에도 個人道場이 없는바는 아니엇지만 그維持에 困難하다는 말을 듣고 잇엇든 때문이다.

그後에 筆者는 늘 朝鮮硏武館의 成長에 注意하얏엇다. 이러든 硏武館은 모든 艱難과 싸워 물리치고 끝임없는 曲折을 征服하야 부드럽게 자라지는 못하엿으나 씩씩하게 勇敢하게 奮鬪하야 世上에 그名聲을 펼치고 半十年이란 今日의 旣績을 기록하야 내려왓다. 筆者가 昨年에 北滿에 하로간 이에 가잇을때 그곳在留同胞中에 新聞을 通하야 알게된 朝鮮硏武館의消息、形便等을 무르로 들어보는 사람이 잇엇다. 이 한례만을 갖고도 朝鮮硏武館이 內外에 알리엇다는것을 證明할수잇다.

이 朝鮮硏武館의 創設者、經營인 師範 李景錫氏의 마음과 몸을 받친 畢生의 事業인지라 斯界의 發展과 隆盛에만 끝일것이아니라 氏個人의 前程에도 光輝잇는바잇기를 바란다. 어느때 어느社會、어느階級을 論할것없이 마음과힘을 公共事業에 던지는 人士처럼 崇高하고 至貴함이 이에 더하지 못할지니 이에 氏에게 한 敬意를 表하는바이다. 우리는 氏와 같이 우리運動界各般을 爲하야 心血을 아끼지말고 明日의 興隆을 建設할 有志家가 續出하기를 衷心으로 바라는바이다.



ClibPDF - www.fastio.com

地方論壇

撫順普校敎員들에게 一言

撫順 一記者

敎育은 人格養成을 本位로 하여야할것이다. 그러므로 學術도 必要하지마는 特別히 撫順地方에處한 學童을取扱하는 普通學校에서는 于先 敎育者가 修養이잇어서 凡事에 學童들에게 模範的으로 보여주어야 될것이다. 그러므로 敎育者는 學科를敎授하는同時 敎育者自身이 德行으로써 兒童들에게 本으로 보여주어야 할 敎育이 된다는말이다. 아모리 才能이잇는敎育者라하더래도 其의修養이 적어 平素에 卑陋한 行動이 만타면 그는 우리子女를 그릇 指導하는 敎育者로서 어느社會에서나 容納할수 없다는것이다.

近間 撫順普通學校에는 敎員들의 風紀紊亂, 生徒에게對한 無理한 體罰, 野卑한言語使用等 敎育界에 不美한事가 이러나 父兄들의 憂慮를 사게되는 모양이다. 校長이 學校의 首長으로서 이러한 職員들을 시키지않는 條件下에 學父兄의 源解를 求하여야 어지간 解決은 되엇다한다. 그러나 諸君은 如斯한不祥事를 다시 하지 아니하도록 同校敎員들에게 一言하려고하는것은 敎員諸君은 朝鮮의 子女들을 가르키는 重大한 使命을 가진敎育者라는것을 다시한번 覺悟하여야 하겟다는것이다. 그러고 늘 修養을 싸어야 되겟다는것이다. 問題를일으킨다면 今番不祥事가 처음이 아니라는것은 諸君의 記憶에도 아즉 새로울배이다. 學生이 不良하다는 敎師의 非行이 所用되는 이 敎育界及 一般社會에 悲影響을 끼칠것이어야 말로 果然 修養잇는 諸君들의 所爲라할것인가? 敎員諸君은 敎育의 根本精神을 體得하야 어기에서 秋毫라도 脫線함이업지 말고 一心으로 學童을爲하야 努力하는것이 當然하다 하겟다. 過去의 事는 只有已矣니 다시 밟게된다면 影響에 다시 나타날이 업기를 바라는 바이다.

下水溝를急設하라

豐川 一記者

豐川邑은 해마다 戶數가 增加되고 人口의 往來가 비번하여 시가는 일에 市內道路整理도 整理되어가나 下水溝가 全部업다고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不備狀態에잇으므로 每年 장마때에는 豐川全部는 浸水區域으로 豐川市民 六千餘名이 平安하잠을 자지못하고 恒常 水害防備에 苦痛을 밧게된다. 昨年에도 市內近二百戶에 浸水하야 그 原因이 上願에 不備한 關係로 危險狀態에 이르럿고 今年도 亦是 그 原因이라하겟다. 昨年 豐川市內浸水時에 某面協議員의 말이 下水溝를敷設하도록 하겟다고 하드니 그것도 말뿐이엇다. 豐川諸人士여! 어찌하야 年年이 浸水되는것을 等閑視하겟는가 年年이 늘어가는것은 靑年의 熱誠뿐이오 關係當局에만이니 念念마시고 우리의 急務인 下水溝를 敷設하기바란다.

伽倻普校悲運

釜山 一記者

釜山 市外西面에 私立伽倻普通學院이 잇다. 十數年의 歷史를 가진 學院으로서 만흔 英材를 培養하여왓다. 그러나 基本資金이 無함으로서 困難에 陷하야 그 存在가 朝夕을 難測케되엇다하니 뜻잇는者로하여금 嘆息을 禁치못하게하는 배잇다.

×

그러나 오늘날까지 優優支撐해온것은 該校當局者의 熱烈한 誠意와 努力이 잇엇기 때문이다. 伽倻校는 비록 一個의 小校일지라도 二百戶에 近千의 人口가 잇는 地方이다. 그런데 一個의 規模의 學校의 維持가 困難하다함은 何故인가? 元來의 貧村이니 그것이 理由의 一端이 아니라 아니겟으나 大理由가 原因은 地方人士의 該校에 對한 誠意가 不足한것이라하겟다.

×

全朝鮮의 敎育熱이 近者에 旺盛에 따라 加하야 到處에 入學難과 收容難의 소리가 놉아지엇는것을 귀잇는사람은 누구나 다 들을수 잇는바이다. 釜山의 就學兒童도 如上의理由로서 入學難과 收容難으로 入學치못하야 不得已附近私立學校에 入學케되는 現狀인으로 釜山鎭에居住하는 無産兒童이 伽倻校에 通學하게되는것이니 釜山有志中에는 伽倻校를爲하야 精神과 物質로同情과 援助가 잇엇으면 誠意하기 짝이업으니 該校는今日과 如한結果를 보지아니할수 없게된것이다.

×

當地父老諸氏여 敎育은 將來의 糧食이다. 無敎면 卽 近於禽獸이라는 事實이다. 父老諸氏여 覺醒하시어다! 願컨대 諸氏는 該校當局者와 協力하야 悲運에선 伽倻普校를爲하여 誠意잇는 努力이잇습지어다!

蔚山灣大風浪으로 數百漁船去處不明

目島附近은數千家族으로混雜

交通杜絶은늣게야判明

【울산】 지난 이십구일 남서에서 부는 강풍에 울산 각처에 수많이 잇어 諸산(蔚山)지방에서도 이번의 피해와 교량 유실봉과 교통 두절로 말미암아 피해정도를 불명하던바 울산 군 남포(南浦)의대에는 수백 어선이 출어중 폭풍우를 맛나 수만은 어선과 어부의 생사를 몰라 당무와 목섬(目島)부근에는 수천 가족들이 대혼잡을 일우엇다 하며 당무 목섬 방어진 등에는 파선된선 박이 무수하다 하며 아직 피해 정도는 조사중이라 한다.

清州邑發展

座談會

記友會主催로

【청주】 청주 신문기자단 淸州記友團주최의 청주발전 좌담회를 지난 이십팔일 오후 四시반에 청주공회당(公會堂)에서 열엇는데 당일은 사방면의 인사가 시민에 만히 출석하여 매우 성황이엇다 한다.

一、南行上敎育施設問題

一、道路及下水工事路線問題

一、物價調節의問題

一、市街路改善의件

一、生活改善의件

一、娛樂機關改善의件

一、市街路增設의件

一、道路及下水工事路線別 道路工事 二〇九、〇〇〇圓

一、水工事 二四、〇〇〇圓

一、其他諸費、機械、雜給、雜費 及事務費 五二、〇〇〇圓

發展하는興南邑

第二次市街整理計劃

二十八만원의 경비를 드리어시

三年間의繼續事業

【흥남】 지난 二十五일 오후 시가 정리공사를 하기로 상부이사 시가정리공(市街整理工)의 제二차 시가정리공사계획(興南邑第二次市街整理工事計劃設計)를 결의하엿는데 이에 흥남읍(興南邑)에서는 시읍회의원회를 개최하고 소화十一、十二、十三 三년간 실시할 총공사비 二十八만五천원으로서 다년과 같이 한창 시로 가결하엿다 하나 흥남 내호(興南內湖)로서 지형이 낫은데다가 도로는 순조롭지 못하던 것을 이번에 소화十 ... 하는바 시읍회 흥남시가(興南市街)의 정비 ... 지방은 상당한 사업비를 들여 ... 내호시 가정리(內湖市街整理)가 금년부터 착수할 공사의 제일선(第一線)에 편입되기로 결정하엿다 한다.

一、總工事費 金二十八萬五千圓也

清德普校의 大講堂新築

운동장공사도 착착 진행해

前途가洋洋한校運

【청진】 대정十一년 三월에 청진 유지들이 설립한 청덕사립청덕학교(淸德學校)는 중도에 경영난에 빠지게 되어 소화五년에 청덕학교 신영가 김기덕(金基德)씨가 인계하야 사재五만원으로 공사를 개수하는동시 보조금이 가해져 현재五백여 아동을 수용하야 오든 것은 이미 세인이 주지하는바어니와 지난 五월 이래 다시 송수학교(頌修學校)를 부설하여 그 이가도 번서 나오지가 오래며 다시 공비四천五백여원으로 대강당과 六월하순에 완성하고 연다며 공비 三천三백원으로 五백평가 되는 대운동장의 기공하야 지금 착착 진행중이라 그와도 동일내로 보게될것이라 한다.

(사진은 신축한대강당과 운동장)

競技中의選手

蹴傷되어死亡

開城蹴球大會場에서

【개성】 고려체육회(高麗體育會) 주최 개성축구대회(全開城蹴球大會)가 지난 二十二일 송고구장(松高球場)에서 개최되어 예선전을 보게되엇는데 남부군(南部團) 대북부군(北部團) 전에 들어가 양군은 열렬한 경기를 보이어 경기를 지행중 북부군이 석패하게 되엇는데 격전중에 잇든 북부선수 김용학(金龍鶴)(二0)군은 남부군의 뱀(足)을 받아 뱃을 물어 가슴에 몸이 상하게 되여 중상수로 인하야 남군에게 채여 지시 중태상태에 들어엇다가 그 후 시부내 남성병원(南星病院) 김경태(金敬泰)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이래 가료중이든바 그는 드디어 급성천공성 복막염(急性穿孔性腹膜炎)으로 신음하다가 지난 二十八일 오전五시三十분경에 절명되엿다고 한다.

寺刹淨化協議

全北道住持召集

【전주】 전북도에서도 사찰(寺刹) 정화문제로 대책을 협의하고저 지난二十七일 도내 본산인 위봉(威鳳) 백양(白羊) 보석(寶石) 해인(海印)각 사찰의 주지를 소집하고 장시간 협의하엿다 한다.

學校基金얻고저 校長이賣藥行商

지방인사는 三천여원기출

隆運의中江信聖學校

【강계】 자성군 중강면(慈城郡中江面) 사립신성학교(私立信聖學校)는 화전면(花田面)의 유일한 민간교육기관으로 二十유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잇으나 경비의 곤난으로 폐교할 지경에 빠지매도 한두번이 아니엇든바 二년전부터 정면표(鄭冕杓)씨가 교장으로 부터 동교를 인계하야 교장으로 취임한이래 내외를 헤시해야 사업보통하교로까지 승격케 하고저 무한이 애를 쓰고 잇든중 금년에 이르러는 교사를 신축코저 설비를 도와중 불원 기공하리라 하며 제반 六년제로 하면까지 현재四년 식교서가 낙성되는대로 현재四면 리러든바 이번에 이사는 동교의 발전을 축하하고 교사신축의 기금으로 다 하겟다는 거에 三천여원이 걸려되엇으며 현재도 답지하는중 이라 한다.

더욱 정교장은 동교의 기본재산의 충보를 폐하야 자면보터 교장자신이 가가호호를 방문하야 순매약행상(賣藥行商)을 행하야 의학도 기본금으로 편입케 하여 왓는바 그성적이 양호하야 금년 여름 인근에까지 행상을 할예정으로 공계읍에 도착하엿는바 전천(前川) 만포(滿浦)를 거처 후창(厚昌)까지 다녀 귀교하리라 한다.

二十二萬圓豫算으로 茁浦港修築計劃

실현된다면 군산보다 유망시

明年豫算編入에猛運動

【군산】 전북 줄포항(茁浦港)은 이수년에 퇴적의 결과로 모래(砂)가 모여들어 수심(水深)이 점점 얕아저서 배가 정박할수 없어 지방부민들의 지정을 받는 전북도당국에서는 금년도에서 나 대장성에서 사제를 당하고 말 시 명十一년도 예산에 추경비 二十二만원으로 동항을 수축하기로 편입시켜 항만개수를 하려하엿으나 이 동항은 군산항의 대안(對岸)에 잇는 정미와 수상시설이 잇는 동시에 항만이될 가능성이 크고 가까이 위도(蝟島)가 잇는 어장으로서 석수어장(石首魚場) 위도(蝟島) 등에 해산물을 동장세력권내에 두고 동장세력이 발전될것이라 한다.

金剛山探勝團

群山支局서募集

【군산】 본보 군산지국(群山支局)과 조선, 중앙양보군산지국과 군산역(群山驛)의 주최로 七월 六일부터 동十二일까지 금강산(金剛山)탐승을 하기로 되엇는바 회비는 一인당 二十五원으로 군산역에서 오후 十시五十분에 차로 七월六일 오후 十시五十분에 군산역을 출발, 내외해금강(內外海金剛)의 전부 탐승하고 원산(元山)과 석왕사(釋王寺) 삼방(三防)을 구경한후 도라오리라 한다.

麥類出廻와 奸商輩拔扈禁止

木浦問屋組合決議

【목포】 최근목포(木浦)에 각 군산(郡山)로부터 생산되는 맥류(麥類)가 금년도에는 반여석예이 이르러고 예상되는바 이에 간상배들은 각처마다 목포에 들어오는 보리를 사들고 시장(市場)(고) 싸게 매입하야 반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아니하는 해를 끼치게 하야 지난 二十三일 오후 三시 목포문옥조합(木浦問屋組合)에서는 역원회를 개최하고 부당매매를 방지할것을 결의하는동시 근본방침으로 평두를사용하는 동시 하강시(下降時)에 三전 오전 우량(優良)은 四전 두시(斗試)에는 七월一일부터 실시할 것을 결의하엿다 한다.

崔興玲 六百圓▲中上洞約四百圓▲無名氏三百圓▲田宗根二百圓▲中江商務會田一千四百三十坪▲金澤鍊田九百三十坪▲李基成林野四千六百八十坪▲中華民學▲金在洙

商務會一百圓▲五十圓씩 金裕漸、崔明奎、金錫華、朴相寅、吳明鉉、李昌信▲三十圓씩 李才明、白永福、金承寶、韓永松、金連韓、李英俊、李正顯、鄭仁和、森源九郞、崔明龍▲二十圓씩 西直任、朴甫根、千須和林作、金亨武、張晉彦、金斗右、張相洙白在龍、車炳俊、安鳳舍▲十五圓씩 金東先、白南基、金成龍▲十圓씩 朱夏煥、朴昌燁、金昌俊、白昌彦、崔基洪、吉成範、朴成權、韓泰武、吉鐵範、朴世輝、朴炳鄭鳳模、宋鳳元、馬鳳煥、韓寶、李成龍、金洙、金光晉、韓明道▲五圓씩 崔敬浩、鄭聖俊、金內善、李昌熙、金炳基、金益錫、張昌奉、金熙晴、張龍澤、李昌熙

맞어죽은사람

죽은사람이 만없으니 알수없어

남의內庭엿보다 竊盜? 痴情關係?

【순양】 지난달 二十일 자정이 넘어 슌양군 서현리(舒縣里) 봉화군 순양면 석현리(石峴里) 김봉익(金鳳翊)이집에는 뚜내외가 자는 안방을 엿보는자가 잇엇음으로 쪽 생이 본래 낫다나 ... 법전면 풍정리 ... (이하 판독곤란) 고 장안면 외에 마을의 여러 사람이 맞어 오래 전 뒤 ... 낫다는 말이 잇으나 ... 잡앗다는바 방은 반의 맞엇음이 지 지난 二十四일 오후에 그만세상을 떠낫다는데 이 소문을 접한 봉화 경찰서에서는 사법주임이 구(具)주임을 대동하고 현장을 검증하고 시체를 해부 하엿다 하며 범인은 주재소 이(李)순사의 손에 체포되어 곧 본서로 압송하야 방금 취조중이라 한다. 죽은자가 같은 마을 면 사람이고 남편보다 나이도 어린 관계로 피고를 대단히 미워하며 죽이기까지 한데에는 원인 세사람이 엇갈린 치정관계가 잇는 듯하다고 한다.

文山公普位置로 面民大會開催

【서천】 충남 서천군 문산면(文山面)은 구내에서 제一면에 우주로 동리에 보통학교를 설치로 보지 못하야 자녀교육상 중대문제이던 금 취소중이라 한다.

仁川交通事故

幼兒二名이負傷

【이천】 이천(仁川)부내에 교통사고 一건

◇……그하나는 지난 三十일 오후三시반경 부내외리(外里) 근처에서 부내 신정(新町)一八번지 [스피드]자동차부 운전수 경통진 쪽(大商號)(　)이 운전하고 가든 경二十四(一)五호자사에 그부에서 놀든 부내용리(龍里)(一三八) 강양 ...

◇……또 하나는 동일오후三시 五十五분경 월미도(月尾島) 다리에서 부내해안정(海岸町) 三정목 一번지 이천자동차회사(仁川自動車株式會社)운전수 김나호(金羅鎬)(　)이 운전하고오든뻐스에 부내화방정 (花房町)一정목六번지 김사걸(金山傑)(三)군이 그만 잘남 광우(光主)(　)이 그 걸음 이 부딪혀 전치 一주일간의 부상을 입고 각각 부내 신정 보건병원(愛健病院)에서 치료중이라고 한다.

미친증을고친다고 桃棒으로亂打致死

경을읽든점쟁이양명의소위

迷信이나흔仁川의慘劇

【이천】 이천부 화정(仁川府花町)二정목 八번지 김권덕(金權德)(　)은 양一개월전부터 정신에 이상이 생겻든바 자아사람은 이것을 고치려고 부내도산정(桃山町)四번지 유지원(兪致元)(　) 동리 一八번지 윤용재(尹容在)(　) 두사람의 점쟁이를 초청하야 지난 十五일경부터 경문을 읽게 되엿든바 전기 두명의 정신병자 흥귀령을 잡을 잠기 간 것 같이 복숭아채로 무수 난타하야 전신이 칠어 복수입을 도 만치 되엿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금속나타 결국 지난 廿九일 오전十시경 절명되고 말엇다한다. 그런대 집안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지 못하고 병으로사망햇다고 화장할려든 사실을 알고 이천서(仁川署)에 서탐지하고 가해자 두명을 검거하는동시에 시체는 경성제대에서 해부를 하게되엇다 한다.

奇特한學生

貧民戶稅代納

【고흥】 十二세된 어린학생이 비민의 호세를 대납한 기특한사실이 잇다. 흥군 남양면 장담리(高興郡南陽面長潭里)장병선(張秉善)(一三)군은 사발적으로 어머니와 의논하고 그 마을의 비민호세 八원八十九전을 대납하는외에 빈민 두가마니도 각각 구사람이에게 분배하엿다 한다.

共濟團組織

함흥부에서

【함흥】 함흥 구제단(咸興救濟團)에서는 지난 二十三일 동단에서 열고 단판내에서 열고 『부민의 文化向上과 生活改善을 圖하야 相互扶助의 實을 擧하기로한』이라는 새로운 보적으로 회측을 개정하는동시에 공제단(共濟團)이라고 이름까지 고치고 다음과같이 역원을 선정하엿다고 한다.

一、婚喪祭禮의簡單化

二、迷信打破

三、衛生思想鼓吹

四、勤儉貯蓄의獎勵

五、勞資生活의實行

六、時間의勵行

동안 위선 제一착으로 실행하리라 한다.

團長金文吉 副團長李昌徵 總務金舜植 鄭在建 書記朴昌寬 韓英龍

列車에重傷

中國人生命危篤

【흥남】 지난 二十八일 오후九시반 경에 흥남(興南) 본궁(本宮)에서 중국사람이 기차에 치어서 중상을 당하엿다한다. 조사하바에 의하면 그는산동성 山東省)太생에 봉남에 천기리(興南西天機里)二一배 四번지목수 송보인(宋保仁)(　)이라는바 부임이잇어 二년리로 가다가 임시 화물열차에 치엇는데 차편대에 실은이 부러지고 두부에 三개소나부 상을 당하엿다하며 지성의원 (중 診醫院)에서 응급치료를 하엿으나 생명이 위태하다 한다.

顏面을燒傷

瓦斯溜爆發로

【신고산】 지난三十일 오전 二시경 고산병원(高山病院)에 집은 사람이 나타나서 면부를 띄게 해달라고 울면서 도라가지 아니한 청년이 잇엇다. 그는 대령광산(大鎬鑛山) 광부로서 지난 二十九일 오후十二시경에 동광산에서 작업중간(間)라 (瓦斯)를 부족하야 석탄와 사(石炭瓦斯)(石炭瓦斯溜)에 석탄와 사가 부폭하야 석탄와 가서 와사를 간데라에 낫타가 몰 면「간데라」의 불기운이 석탄와 사와로 들어가면서 폭발되어 머리와 얼굴이 전부 타젓다는데 의사에 말은 생명에는 아무관계가 업으나 눈에 대하야서는 몇이 동안 치료 하여 보아야 알겟다고하엿는데 그는시상 아수 없이 보이지 아니하며 소경과 다름이 없이 되엇다한다. 그는 함변군 문산면 이동리(安邊郡文山面新高里) 박홍선(朴弘鎭)(　)으로 부모도 없고 처자도없는 외로운 홀몸이므로 금번四원에 위어면 죽근리 (衛城面竹根里)대령광산 이병엽(李秉燁)씨에게 사업중 그와같은 불행을 입게 되엇다고 한다.

淸州에降雨不足

【청주】 청주(淸州)지방에는 오랫동안 비가 나리지아어 왕파이 균열되어 인심이 자못 흉흉하던바 지난 二十八일부터 쏘다지는 소낙비는 二十九일까지 약 四十미리의 우량이엇으나 전부의 이양까지는 아직도 부족하다 하야 농촌 인의 우량은 업슬모양이라 한다.

그것은 물자의 실체이라고 一반은 비난이 놉다한다.

素砂市民座談會

【소사】 지난 二十九일 오후一시경 소사신한소사(素砂) 관민유지四백여명은 동면 공심당 (公會堂)에 회집하야 입시 장원영 (元榮常)씨사회로 지방발전과 교통, 위생용에 관한 여러가지의 견이 상당히 만엇다 한다. 동오후四시에 이번은 이에 실행을 기하고저 새로운 한개의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엿는데 명칭은 소사번영회(素砂繁榮會)라 하엿다.

◎會合

◎咸南新昌山 海唐專門開講式 七月二十五日 天主敎會堂에서開催

◎消息

◎鄭權和氏(天安郡 稷山公立普通學校訓導) 十五周年勤續表彰式參一日同校에서擧行

◎李甫文氏(朝鮮商業銀行員) 新任人事次去二十九日本報稷山支局來訪

◎柳兆東氏(稷山郡誌) 新任人事次本報稷山支局來訪

◎千熙圓氏(高靈公普校訓導) 新任人事次去二十六日 本報高靈支局來訪

◎金元鼎氏(咸化公普校訓導) 新任人事次 二十八日 本報咸化支局來訪

◎崔永翰氏(平壤郡東上面長) 新任人事次去二十五日 本報東上分局來訪

◎洪彰憲氏(白馬公普校訓導) 新任人事次去廿八日本報白馬支局來訪

眉愁

尹白南作 李靑田畫 (54)

五、병 란 (二)

그이뻥을들어보면 「풍신수길(豐臣秀吉)이 일본을 어떠케 통일하엿다면 쟝나비상 된 수잇으면 조선군병이 선구사 할 명수잇으면 조선의 풍신수길이 이를 두려워하 야 명나라를 치기위해 「고 군대 가 와서 는 이러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조선은 명나라를 상국이라하야 일시 대소사를 물론하고 명의 지시를 바더 왓다 하야 어찌 원이 엿보아 하게되는 형편에 잇든지라 쉽게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않을것도 당연한 일이엇다.

또 한가지 일본의 요구를 사절하게 만든데에는 또 한가지 사신으로 갓든 사절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 간과 심정으로 보고하야 대답할 수 잇었든 일이엇다. 이리하야 조정에서는 항의수론을 올타하는파와 김성일설을 지지하는파가 서로사가의 실을 주장하야 마지안엇다.

조정에서는 일본의 정세를 보고 하게되엇는데 황윤길(黃允吉) 김성일(金誠一)의 두 사람이 도라와서 일본의 정세를 보고하게되엇는데 황윤길은 일본에 보냇던 사신 일본이 선조 二十四년 三월에 원이 도엇다. 그 일본에 이어 침략할 의사가 잇엇든 수잇으리라 하는 것은 없으나 무분별한 이가 부신(富臣)이 잇어 명나라를 침 봉은 한개 약속한 도국에 지나지 아니하야, 발몽 다부지게하여도 저 는 동인(東人)이라 이가 국가 에 관계가 잇는것이에 불구 하고 그들은 이것을 사기를 당파 의 싸움에 이용하고마는 형상이 되엇다.

그런데에다가 조정의 물론은 김성일의 설로 기우러저서 헛되이 일시의 태평을 취하게 되엇다.

다만 한가지 문제는 풍신수길이 서면에 일본사신의 명국(明國)을 치(入)이라는 말이 잇는 것을 명나라에 보고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에 대하야 논의를 하엿다.

대사헌 윤두수(尹斗壽)는

「사건이 상국에 관계되는이상 맛당히 속히 주문하는것이 올흘 것이다. 」하고 혹은 「이것을 상국에 주달하면 뒤에 반드시 우리조선이 사사로 일본국과 통한 죄목을 엇고 말것이오 차라리 감추어 주달하지 안는것이 올타」 하야 주장하는 의논이 빙충하엿다 니 수신 유궁(柳根)이가 「상국에대한 대의상 이런사건은 숨어 주달하는것이 맛당하 지마는 너무 붙어서 말할것이 아니라 대사를 일시안케 주달하여 두는것이 올타」는 설로 두파의 말을 조정하엿다.

이리하야 조정에서는 김응남(金應南)을 하절사(賀節使)로 명나라로보내서 이사실을 주달케하엿다. 그러데 한명의 이때에 조정에서 이사시에 의하야 주장을 따랏든가 아나지 일시 조정이 부경한 이에 대하야 조정 명에 과 인을 명에 계받게되엇슬 미국과 악운을 본건이 아니라 풍신수길이는 그당시의 유구(琉球)에 사신까지 인에 조선은 임의 조선이 가지 보냇으니 앞으로 그렇게이야기 하야 명나라를 치겟다는 뜻을 알리러 ...

水力不足으로 火力으로送電

二천八백키로를 송전한다고

全北旱魃이끼친影響

【군산】 전북 동양수리조합 운암저수지(雲岩貯水池)단수로 동저수지에다 수원(水源)을 둔 남조선수력전기발전소는 드디어 기계운전을 못하리라고 누차보도하바와같이 지난 二十七일부터는 동발전소의 기계운전이 정지되여 군산화력발전소(群山火力發電所)에서 송전을 개시하엿다는바 동화력발전소는 전력 약二천기로의 기계로 현재 二천八백기로를 군산시내에 송전하다고 한다.

義城上水道竣工

【의성】 경북 의성군 도리원(鄕城郡桃李院)에는 구안노선(邱安路線)의 요주지로 교통이 제일번잡하고 부라진사이 가장 만흔 곳으로 종래 음료수가 불량할뿐더러 우물이 一개소에 불과하야 일상 생활과 위생상 적지안은 문제로 다녀간 현안이엇다 한다.

동향면장이준구(李濬九)씨와당지 수재소수석(牛島丈夫)씨가 지난봄에 경북 구룡포(九龍浦)에 가서 상수도를 시설하고와 서 시 당지 위생연구사업으로 뒤내(後川)수로 대대한경 비를 드려서 원천부터 공사에 수하야 오든 七월 중순에는 준공 되리라는바 원천 三마력급 사용할터이라고 한다.

一、施設區域、碍興郡一圓、平山郡文武面、安城面、上月面、新溪郡雙西面

一、施設期間、自昭和十年七月一日至同年九月末日

責任制限人員

極貧患者施療

新幕順天醫院서

【신막】 경의선신막역전 (慶義線新幕驛前)순천의원 (順川醫院)에서는 자면三월一일부터 七월말까지 서흥군(瑞興郡)일원에 한하야 제一회로 극빈자를 무료로치료하엿과 치료를받은 환자三천一백구십이라는 다수엿든바 이것을 또다시 제二회로 그사업을 계속한터이래 금번은 특히 농촌의 물경기를 동정하야 치료구역을 확장하는동시에 하기방면에 의하야 방매에 시달리는 극빈한사람들이 한아도 유감이없도록 치료 할방침을 반면에 무료로 각기관 에 서면으로 의뢰하엿다 한다.

一、調査方法、各新幕支局長、面事務所、警察官吏、各里區長各面協議員、各宗敎團體中에서누구에게나(極貧)者를請

窮民의種穀盜難

【평산】 평남맹산(孟山)지방은 작년의 흉작으로 귀아선상에 잇는 궁민들이 만타함은 누보하바이니와 그중에도 봉군애원면 (滿田面)은 더욱심하야 도에서모 밀(種麥)종자二十二석을 궁민二 백여 十一동계하엿는데 지난十 ...

그러데 그런데 한명의 이 일로 보 성한지 도 정세를 ... 하는말을듯하고 동신수길의 상년 주 논의공채가 비굽하고 탐욕이 ... 치못한것은 분명하엿이다」 하엿 ... 그러치마는 풍신수길의 ...

謹告

任總務 尹寶模 韓相觀

任主筆 李東熙

任營業局長 ...

右와 如히 本社 谷城支局長을 依願解職하엿삽기 玆에 謹告하나이다

谷城支局長 金 洙 熙

東亞日報社

昭和十年六月廿四日

社告

任谷城支局長 申性均

任總務 尹寶模 韓相觀

昭和十年六月十五日附 東亞日報社 江東分局

任文山分局長 鄭永祚

昭和十年六月十八日附 東亞日報社 晉州支局

任總務 河東國

昭和十年六月十九日 東亞日報社 松禾支局

任江東分局長 金泰坤

昭和十年六月十五日附 東亞日報社 蔚山支局

任顧問 崔東俊

任集金員 姜在榮 姜又命石

昭和十年六月十八日附 東亞日報社 文山分局

任總務 朴成甲

任記者 李能漢

任記者 金東許 金海東

昭和十年六月一日附 東亞日報社 上南分局

任記者 鄭基寶

任醴川支局記者 朴重浩

任營業員 ...

昭和十年六月...日附

東亞日報社 醴川支局

ClibPDF - www.fastio.com

各地農事消息

義城移秧不良

慈城麥農豊作

淸州麥收豫想

扶安移秧不順

長城도移秧不良

蔚山移秧好調

小型船을利用해서 牛密移出增加

當局은對策을講究中

畜牛十六萬頭 共濟加入萬餘頭

春繭共販狀況

六百萬圓投資로 群山肥料大工場

多木肥料遂進出

麥旱刈督勵 咸南道當局에서

稀有의大金鑛 水原에서發見

淸津에新設되는 魚加工品工場

工事進行中인것이五個社

菓砂果物市場

鮮航會運賃 各港引下斷行

四日、評議員會에附議

金泉生繭出廻 一萬五千餘貫

大豆增産計劃

本宮大豆化學工場 建設을機會삼아서

盟外船活動으로 同盟會積荷激減

法律顧問

七月號 新東亞 冒險特輯

米洲大陸을發見한 컬럼버스의 大冒險 …… 辛鳳祚

世界的大航空家 린뻐그와 체펠린 …… 金容瓘

諸氏의冒險談 …… 蔡弼近 李仁 李克魯 梁柱三 金經 朴漢永 金敬注 安在鴻 金昶濟 崔鉉培 金麗植 李[illegible]珪

二千字토픽 逸話 英語 法律 政治 科學 教育 宗教 醫學 經濟 哲學 文藝

亞細亞探險家헤딘博士

海底探險家삐-부博士

삐-드少將南極探險記

世界의風俗 世界의動向 …… 高永煥

隨筆: 顯忠祠와三傑 …… 金觀濟 / 아슬아슬 …… 金俊淵 / 欲發未發記 …… 卞榮魯 / 恥堂先生挽 …… 玄相允 / 바다여 …… 崔永秀 / OK는생각함 …… 李無影 / 故鄕에다녀와 …… 金光[illegible]

二百字短評

懸賞問題 럿셀이現代教員에게하는말 …… 崔承萬

大探險家 아문젠翁의生涯와業績 …… 李相睦

釋迦의誕生과人類의文化 …… 金敬注

獨立하는比律賓과米國 …… 東岩生

文武兼全한新羅名將金庾信 …… 金道泰

中國經濟恐慌과中國의外交政策 …… 鞠淳葉

米國의對外政策 …… 許然

滿洲國經濟의發展相과將來 …… 張鉉七

武俠奇談 九死一生의 佳緣 …… 李圭鳳

西洋史上勇士列傳 …… 李卯默

朝鮮史上勇士列傳 …… 金庠基

朝鮮農民文學의根本問題 …… 洪曉民

朝鮮大膽力家史話 …… 金[illegible]根

創作: 破鍾 (短篇) …… 趙碧岩 / 苦悶 (長篇) …… 嚴興燮 / 나루 (戲曲) …… 朱永涉

作家에게되주고받는말: 姜敬愛女史께 …… 張赫宙 / 張赫宙先生께 …… 姜敬愛

普專校長更迭顚末

初創時話 (進明女高篇) …… 記者

一頁評壇: 評壇에一言 …… 丁來東 / 美展을보고와서 …… 金周經

詩: 破調 …… 李洽 / 夕暮에느끼는哀詩 …… 柳致環 / 片眼者가都會를驅馳한다 …… 徐丙玨 / 이밤의愛愁 …… 李瑞海

近世朝鮮의社會階級 …… 金正實

四新博士及一學士訪問記

大統領과뉴딜의將來 …… 洪翼範

哀王端宗小史 …… 張道斌

誌代三十錢

發行所 新東亞社 京城光化門通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